

“기후위기 속, 환경과 인문의 가치를 함께 되새겨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개최
31일부터 양일간 중심사지구 일대
‘지구’ 키워드, 6개 테마 62개 활동
‘한강 전시’ 등 체험·관람부스 마련
“지속가능 미래 고민, 주민 관심을”

광주광역시 도심을 품은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과 인문적 가치를 되새기는 축제가 펼쳐진다.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깊은 사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광주 동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 지구에서 제3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For:rest’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깡’이라는 독특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마지막 장에서 영감을 얻은 ‘꽃 핀 쪽으로’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여



기에 ‘뽀짝’ (가까이)과 ‘뽀깡’ (온 힘을 다하다)이라는 전남 방언을 활용해 지역적 정서를 녹여냈다.

총 6개 테마, 62개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3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구(Earth)’를 키워드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성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

다. 이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전남 녹색연합,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지역 환경 관련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한강 작가와 관련된 특별 전시 ‘한강의 숲에서’가 진행된다. 특별전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 글과 사진 등으로 구성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자와 독자 등 70여 명이 한·일 문학기행의 일환으로 인문축제에 참여, 무등산과 5·18 사적지를 견학하며 사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무등산 편백숲 생물 다양성 대탐사 ‘생명을 기록하다’, ‘쓰레기 피아노 아저씨’ 이승규 작곡가와 함께하는 ‘업사이클 뮤직’ 공연, 주민들과 함께하는 야생동물 미술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무등산 동물님들’ 등이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행사 첫날에는 광주시민 등 200여명이 무등산 동물 인형 모자를 쓰고 행사장 일

대 1.7km 구간을 걸으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무등인문행진’도 열린다.

또한 소설가 김탁환, 설치미술가 최병수 등 명사를 초청한 인문토크, ‘숲명 소풍’, 명상과 사색을 즐기는 ‘인문 사유 정원’, 청년 독서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년 문학 버스킹’ 등도 마련된다. ‘인문도시 동구’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전시와 팝업 부스도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7일부터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누리집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한 뒤 링크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등산 인문축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문적 가치들을 돌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며 “극심한 기후 위기 시대를 마주한 현재,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축제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 ‘호응’ 서구, 일자리·건강·복지·여가 등

광주광역시 서구가 ‘100세 건강시대’를 위한 다양한 노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서구는 노인 일자리·건강복지·여가생활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구는 국수 한 그릇을 단 돈 1000원에 판매하는 9개의 ‘천원국시’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별로 22명씩 총 19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지킴이, 재활용자원관리 등 31개 공익활동 사업에 53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서구시니어수호단, 걸음친구 등 31개 역량활용사업에 118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리 지원도 눈에 띈다.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60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뇌 영상(CT)과 혈액검사 등 치매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의사·간호사·복지사가 팀을 이룬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통해 AI기반 24시간 돌봄 안전망을 가동 중이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다채로운 여가 생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슬로우조깅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서구형 평생학습 정책인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에서는 시니어 대상 맞춤형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외에도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어 회화,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등 90여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비대면 학습 환경도 강화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100세 건강시대’를 위한 다양한 노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천원국시’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광주 서구 제공

광주송정역, 오월 광주 ‘관문’으로… 5·18 안내소 운영

15~21일… 문화해설사 등 상주
17일 윤상원 생가 시민참여 캠페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15~21일 7일간 광주송정역에서 ‘5·18민주화운동 안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은 80년 5월 당시 시위군중이 집결한 5·18 역사 현장이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의 공간·기능적 특성,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오월 광주를 알리는 안내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광주송정역 광장에 마련되는 안내소에서는 광주를 찾은 방문객에게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5·18 사적지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로 5·18 제45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한 장소, 일정, 교통편 등도 안내한다. 안내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안내소를 여는 동안에는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가 상주한다.

광산구는 또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로 5·18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5·18 전날인 17일 윤상원 열사 생가에 있는 임곡동 천동마을 일원에선 청소년, 시민이 함께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시민참여 캠페인이 열린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협력해 5·18 광산길 걷기, 5·18 낱말 퍼즐, 추모 등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윤상원기념관(천동마을민주커뮤니티센터)과 연계한 ‘5·18 항쟁 알기’도 운영한다. 윤상원 기념관은 캠페인과 별개로 이날 ‘민주주의를 구한 광주의 함성’이란 이름으로 전시 해설, 공연, 종이방향제

만들기, 평화의 열쇠고리 만들기 등 5·18 민주화운동 체험 마당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1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상원 열사 생가와 윤상원 기념관에서 윤상원 열사 추모식을 연다.

묘지 참배 및 추모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90년대 이후 태어난 광산구 청년 공직자 등이 참석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끈 광주의 오월은 45년이 흘러서도 ‘시대의 빛’으로 반짝이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밝히고, 지켜내는 힘이 됐다”며 “기억하고 계승하는 많은 시민의 실천으로 오월 광주 정신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이정표로 굳건히 서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광장의 5·18 사적지 지정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사적지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정보 취약계 ‘이동 복지상담실’ 남구, 노인·장애인복지관서

광주광역시 남구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광주 남구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은 잠재적 복지 수혜자가 대부분이면서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남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한두 차례씩 열린다.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명이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피상담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제도 안내를 비롯해 누락 서비스 신청, 권리구제 방법, 타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 다채로운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새 정보를 취득하고서도 서류 작성 등이 서툴러 서비스 신청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즉시 해당 주민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직권 신청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북구, 6월부터 1박2일 총 3회

천문 교육·천체 관측 등 구성

광주광역시 북구가 국립광주과학관과 협업체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이하 별밤캠프)’를 운영한다.

7일 북구에 따르면 ‘별밤캠프’는 과학을 기반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및 전시관 일원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의 초등학교 가족 180명이며 기수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제공될 프로그램은 △3D펜 활용 열쇠고리 제작 △전문가 천문교육 △야간 천체 관측 △과학관 관람 등으로 1박 2일간 운영된다.

이번 캠프는 오는 6~7월의 기간 중 참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1기(6월14일~15일), 2기(6월28일~29일), 3기(7월19일~20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기수당 15가구(60여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eyemosemous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과학 접근성 확대를 위해 1~2기 참여자는 취약계층 가정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캠프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과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학 협력 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